“청년 소통·자립 돕는다”…장성군, ‘아우름’ 개관

사업비 46억여원 투입 2층 규모

창업·마음 건강 밀착형 프로그램

‘청년성장 프로젝트’ 병행 추진도

장성군이 최근 지역 청년들의 소통과 자립을 돕는 청년센터 ‘아우름’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김한종 장성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지역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소통과 자립을 돕는 청년센터 ‘아우름’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3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장성읍 시가지 일원(영천로 231-1)에서 청년 정책의 든든한 컨트롤타워가 될 청년센터 ‘아우름’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민선 8기 출범 초기부터 핵심 공약 사업으로 추진된 ‘아우름’은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이후 2024년 하반기 첫삽을 뜬 지 1년여 만에 총사업비 46억2천700만원이 투입돼 대지면적 1천690㎡(512평), 바닥면적 582㎡(176평), 지상 2층 규모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청년들의 발길이 머물 1층은 자유로운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공유카페’와 소규모 모임에 특화된 ‘공유회의실’ 등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다.

2층은 각종 강연과 전시, 행사를 아우르는 ‘다목적홀’을 비롯해 첨단 정보화 교육장과 사무실 등 실용성을 극대화한 맞춤형 공간으로 채워졌다.

그동안 지역 내 마땅한 청년 교류 공간이 부족해 갈증을 겪었던 만큼, ‘아우름’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장성 청년 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낼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청년 역량 강화 및 취·창업 지원은 물론, 소규모 창업 기초 과정인 ‘청년 드림 클래스’,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맞춤형 심리 지원 ‘마음 온(on)’, 청년 공동체 교류 활동 등 다채로운 밀착형 프로그램을 연중 가동한다.

군은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예산 등 총 2억6천700여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청년성장 프로젝트’도 병행 추진한다.

이는 맞춤형 멘토링과 일자리 연계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든든하게 뿌리 내리도록 돕는 핵심 정주 여건 개선 대책이다.

아우름 센터는 청년들의 퇴근 후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

이밖에 기타 문의는 ‘아우름’ 사무실(061-390-7702)로 연락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장성 역사상 최초의 청년센터인 ‘아우름’이 문을 연 올해는 청년이 비상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원년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년들이 장성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굳건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화순에서 낭만적인 봄밤을”…상춘객 손짓

봄꽃 축제 내달 17일부터 열흘 간

오후 3시-9시 운영…차별화 전략

피크닉·배달존 도입 상권 연계도

화순군이 ‘봄꽃 야행(夜行)’이라는 독창적인 테마로 상춘객을 맞이한다.

3일 화순군에 따르면 ‘2026 화순 봄꽃 축제’는 다음 달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열리며, 특히 운영 시간을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집중하는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앞서 화순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봄꽃 축제의 핵심 테마와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주 무대인 꽃강길 일원과 경관 위주로 꾸며질 남산공원을 연계해 화순만의 낭만적인 봄밤을 연출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쏟아졌다.

지역 상권 활성화의 든든한 마중물이 될 ‘피크닉존’ 및 ‘배달 픽업존’ 도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른 배달 용기 및 쓰레기 등 환경 문제 대비책도 철저히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화순의 매력을 담은 시그니처 굿즈(기념품) 공모 개발, 자원봉사자 현장 안내 교육 강화, 특색 있는 야간 경관 연출 극대화 방안 등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무엇보다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촘촘한 교통 및 현장 통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재윤 화순군 축제추진위원장은 “올해 축제는 단순한 꽃 구경을 넘어 화순만의 고유한 스토리가 살아 숨 쉬는 체류형 문화 행사로 비상할 것”이라며 “차별화된 야간 콘텐츠와 빈틈없는 현장 운영으로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낭만의 봄날을 선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광양교육지원청, 학생 역량강화 캠프 ‘성료’

광양교육지원청은 “최근 청사 2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초·중·고 학생자치회 대표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광양학생자치연합회 역량강화 키움 캠프’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주도 기획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참여 학생들은 행사 기획부터 의사소통 실습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사진〉

특히 인권·교육·운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위원회를 새롭게 꾸려, 일선 학교의 생생한 목소리가 지역을 넘어 전남학생의회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탄탄한 소통망을 구축했다.

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생회 활동이 단순히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참여라는 점을 깨달았다”며 “우리의 의견이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여선 교육장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의견을 부딪치고 해답을 찾아가는 치열한 과정 자체가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과서”라며 “학생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학교의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끄는 당찬 돌풍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날개가 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곡성군, 상승 곡선 그린 청년 인구 굳히기 ‘박차’

6개 분야 61개 사업 835억 투입

전년比 588억↑…귀농 등 집중

곡성군이 835억원 규모의 청년 정책 예산을 책정·추진하며, 상승 곡선을 그린 청년 인구 반등세 굳히기 들어간다.

3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최종확정했다.

올해는 ‘청년과 STEP-UP, 행복 곡성’이라는 비전 아래, 농어촌 기본소득 등 15개 신규 사업이 수혈되면서 전체 사업비가 전년 대비 588억원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6개 분야 61개 사업을 펼친다.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과 전 군민 버스 무료화 등 생활 인프라에 90억원이 투입되며, 출생 기본수당 및 24시간 어린이집 돌봄 등 보육 분야에도 48억원을 배정한다.

귀농·귀촌 분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필두로 561억원이 집중된다.

특히 군의 청년 인구는 4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다 지난해 125명이 늘어나며 뚜렷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린 상태다.

곡성군 관계자는 “파격적인 기본소득과 무료 대중교통 등 피부에 와닿는 생활 밀착형 지원망이 청년들의 발길을 곡성으로 이끄는 강력한 자석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와 주거, 촘촘한 복지가 빈틈없이 맞물린 톱니바퀴 정책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뛰어넘어 역동적으로 들썩이는 젊은 곡성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고흥군, 통합돌봄사업 ‘의료분야’ 맞손

18개 기관 MOU…맞춤형 돌봄 기대

고흥군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굳건히 손잡고 집에서 편안하게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고흥형 통합돌봄’ 의료망 구축에 나선다.

3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팔영산홀에서 관내 18개 의료기관과 함께 의료·돌봄 연계 체계 확립을 위한 통합돌봄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민관이 공동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치료부터 회복, 일상 복귀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든든한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거동 불편 대상자 방문진료 및 복약 관리 ▲병원 퇴원 환자 돌봄 공백 최소화 연계 지원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재택의료센터 운영 등이다.

군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예방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낼 전망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의료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역 중심 돌봄이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성학 기자

담양군, 풀뿌리 마을공동체 육성

8천300만원 지원…사전교육도

담양군이 주민 스스로 동네의 묵은 과제를 찾아내고 골목에 생기를 불어넣는 풀뿌리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을 복격화 한다.

3일 담양군에 따르면 ‘2026년 전남 마을만들기 공모’와 군 자체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에 최종 선정된 20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총 8천300만원의 예산을 전격 투입한다.

올해 선정된 공동체는 전남도 공모사업인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씨앗 4개소, 새싹 2개소),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9개소와 담양군 자체 사업인 풀뿌리공동체 디딤돌사업(디딤 2개소, 돋움 3개소) 등이다.

지원에 앞서 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달 26일 어울림센터에서 투명한 예산 집행을 돕는 보조금 시스템(보탬e) 실무를 전수했다.

신규 공동체에는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와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며, 기존 공동체에는 사업 고도화와 장기적 활동 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양순애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장은 “지난 10년간 약 500개 공동체가 참여해 지역에 활력을 더해왔다”며 “이번에 선정된 공동체들이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 간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지난해 유아숲체험원에서 열린 ‘유아숲 교육 및 숲 해설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들 모습. 〈여수시 제공〉

여수시, 오는 9일부터 유아숲체험원 운영

5-7세 아동 대상…눈높이 맞춤 교육

여수시는 3일 “오는 9일부터 ‘2026년 유아숲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답답한 콘크리트 숲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산림 교육 형태로 진행된다.

운영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2월3일까지 지역 내 유아숲체험원 3개소(미평 산림욕장, 도원 사나래, 소라 가사리)에서 5-7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현장에는 전문 유아숲지도사가 상주해 눈높이에 맞춘 놀이 중심 활동을 이끌며, 아이들의 창의력은 물론 또래 간 협동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쑥쑥 키워줄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 산림과(061-659-4612)로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흙을 밟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이 주는 무한한 상상력을 온전히 흡수하며 튼튼하게 자라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심 속 푸른 쉼터를 지속적으로 늘려 365일 시민의 삶에 짙게 녹아드는 명품 산림 휴양 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CMYK